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군산시,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보고... 주요 역점 · 신규사업 논의

군산시는 2024년 인구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저출생 및 고령사회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일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는 신원식 부시장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관계공무원 7명, 시의원·각 분야별 전문가 7명 등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의에 앞서 신원식 부시장은 기자들과 함께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이후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2024년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주요 역점·신규 제안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024년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은 하이 낱아 키우기 좋은 키움 으뜸 가족 행복도시 군산이라는 비전 아래 △인구 변화 체계적 대응 △개인의 삶의 질 향상 △활력있는 도시 구축이라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5개 전략 17개 중점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출산·아이돌봄, 교육·일자리, 정주환경 등 분야별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활력 증진에 따른 사업비로 4,261억6,400만원이 투입된다.

위원회는 5개 전략 △다함께 돌보는 지역사회 조성 △모두의 역량 발휘로 지역경쟁력 강화 △머물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사회 구축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추진을 위한 역점 및 신규 제안 사업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정책방향 구체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 △국립대 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 사업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노인복합 문화시설 건립사업 △외국인 산업현장 맞춤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해 힘을 싣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 주요 역점사업은 살기 좋은 군산과 일하기 좋은 군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이 중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지난 4월 9일 개정되면서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었다"며, "다만 공인중개사 및 중개위원이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7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의뢰받는 중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권유예정책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홍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임차인 보호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및 올해 4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군산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걸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중개위원에게 일련성을 보장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기관(법원 및 주민센터 등)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판리비 세부 내역도 공개해야 된다.

특히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의 정액으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이라면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세부 비목은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

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을 말한다.

군산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지난 4월 9일 개정되면서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었다"며, "다만 공인중개사 및 중개위원이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7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의뢰받는 중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권유예정책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3년 연속 우수등급

군산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인 'A' 등급을 획득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방지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2023년 진단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53개의 정량지표와 8개의 정성지표를 평가한다. 기초지자체에선 군산시를 포함한 전국 47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선 정읍시와 군산시 두 곳만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군산시는 전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개정 검토·공개 등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활동을 높게 평가받아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군산시 임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이런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억 600만 원을 투입해 직경 500mm 이상 하수관로가 매설된 지역 총 253k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추진한 영동동 남중동 일원 65km 구간을 포함해 현재까지 115km에 대한 GPR탐사를 실시했으며, 발견된 지하 공동 15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해 지반 침하를 예방했다.

올해는 읍면지역 20km 구간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고 지하 공동 발견 시 신속한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익산시가 동우화인켐(주)과 대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동우화인켐과 투자협약 체결

익산시, 100여명 채용 ·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익산시가 동우화인켐(주)과 대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시는 20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이종찬 동우화인켐(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제일빌딩 301호 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우화인켐(주)는 단계적으로 제일빌딩 301호 확장단지 약 9만 9000㎡ 부지에 총 3,3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우화인켐(주)는 1991년 설립 이후 국가산업단지 신홍공창, 제8산업단지 삼기공창 등 지금까지 익산에 약 7,000억 원을 투자했고, 현재 480여 명을 고용 중인 대기업이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용 고순도 및 기능성 케미컬 반도체용 첨단테스트

터치센서, 편광판 등 첨단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지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으로 매출증대와 국내·외 시장 확대, 제품 수요 증대에 따라 생산공장을 확장하게 됐다.

이번 투자를 완료하면 익산에만 총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570여 명이 상이 근무하게 된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익산에 본사를 둔 대기업인 동우화인켐의 추가 투자를 환영한다"며 "전북자치도 출범 후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해 준 동우화인켐의 든든한 파트너가 돼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리 시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동우화인켐(주)과 같은 우량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반침하 선제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익산시가 땅속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지하에 매설된 500mm 이상 하수관로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이하 GPR)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GPR 탐사는 일정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 파를 이용해 지하 시설물을 추적하는 방법이다. 관로에서 새어 나온 하수로 인해 발생한 공동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 복구할 수 있어 지반 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억 600만 원을 투입해 직경 500mm 이상 하수관로가 매설된 지역 총 253k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추진한 영동동 남중동 일원 65km 구간을 포함해 현재까지 115km에 대한 GPR탐사를 실시했으며, 발견된 지하 공동 15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해 지반 침하를 예방했다.

올해는 읍면지역 20km 구간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고 지하 공동 발견 시 신속한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가족센터, '가족 사랑축제 봄!봄!봄! 개최

익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정임)가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모현공원에서 '제17회 가족사랑축제 봄!봄!봄!'을 진행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함께 해 봄! 즐겨 봄! 놀아 봄!'의 주제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온 가족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버스킹 공연, 필리핀 전통춤 탕드랍 연주를 시작으로 요술공연, 비즈팔찌, 드론, 3D펜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들은 익산시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며 전화(063-841-6040)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임 센터장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돌아보는 축제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보석박물관, 어린이들 위한 아시아 보석 전시

익산시가 어린이들을 위해 아시아 각국의 보석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익산시 보석박물관은 개관 22주년을 기념해 5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어린이 특별 전시 '나리별 보석이야기(아시아편)'를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보석에 담긴 특성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다양성 확대를 돕고자 마련했다.

전시회는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11개국의 보석을 선보인다. 서아시아의 보석인 터키석과 청금석을 비롯해 사파이어, 루비 등 보석 7종의 원석부터 장신구까지 100여 점이 전시된다.

아울러 나라에 대한 소개와 특정 보석이 유명해진 지리적·문화적 이유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어린이들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7종 보석 염서에 여행하고 싶은 나라와 이유를 쓰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체험도 준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